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변지연* · 이순홍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20세기 후반의 패션은 점점 다양화되면서, 각자의 개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와서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화로 인해 복고모드를 현대적으로 연출하게 되고, 이와 함께 1960년대 반문화의 하나였던 미니멀리즘의 재등장을 낳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니멀리즘의 출현배경과 개념,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20세기 전반에 걸친 패션의 흐름 속에서 미니멀리즘이 패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미니멀리즘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새로운 전위예술이 미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유럽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만난 태동한 미국적 미술사조이다. 미국의 기계화, 산업화 및 대량생산과 기존제도하의 의식과 감성의 허구를 거부하면서 나타난 미니멀리즘은 같은 시대의 상업성 미술인 팝아트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하지만 현대 미술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며, 포스트모더니즘 출현의 기반이 된다.

미니멀리즘은 물체성이라는 3차원적 특징과 함께 비내부성(非內部性), 반복성, 환경성이라는 4가지의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 당시의 앙드레 쿠레주의 우주, 미래지향적 패션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의 과학혁명과 미니멀리즘은 미니혁명을 야기하였고, 가전제품에서는 소형라디오, 패션에 있어서는 미니스커트를 등장시켰다.

21세기를 앞둔 세기 말의 무드속에서 나타난 '레트로(Retro) '60' 으로서의 미니멀패션의 특징은 첫째, 간결한 조형적 라인의 추구와 세부장식의 최소화, 둘째, 하이테크(High-Tech)소재의 사용, 셋째, 사이즈에 있어서 소형화(Miniaturization)를 들 수 있다.

미니멀패션은 환경이 파괴되고 지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입장으로서의 인류의 적극적인 대응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